

북한 '비핵화 대화' 일본만 시큰둥

미·중 “의미있는 성과” 평가

핵도발 잠정중단으로 규정

아베 “상황 지켜볼 것” 경계

미국, 중국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대화’ 용의를 보인 점을 의미 있는 진전, 상상을 초월한 외교 성과 등으로 높이 평가했다. 일본은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의제에 포함할 가능성을 연 것만으로도 오랫동안의 교착 상태를 거듭해온 북핵 협상국면에 돌파구가 조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조경부 핵·미사일 도발 중단 의사를 밝힌 부분을 사실상의 ‘핵 프로

그램 모라토리엄(잠정중단)’으로 규정하면서 북미 간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착수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뿐 아니라 직접 미국 정부에 이번 제안의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는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흔쾌히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게 새로운 것”이라며 “이것은 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핵무기 동결 등을 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합의를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파기한 과거사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과거 북한과 협상한 적이 있는 인사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비핵화 공동성명 등 북한이 비핵화를 내세워 합의와 파기를 반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나라면 지나친 낙관주의는 주의하겠다. 과거에도 이 길을 여러 번 걸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과 자질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대해 호평일색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이 정도 성과까지 거둘 것으로 생각한 전문가들은 없었다”면서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의제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성과”라고 말했다.

주평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도 “지

난번 올림픽 기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더불어 획기적인 외교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정세에 아주 좋은 일이자 한국을 비롯한 북핵 당사국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만은 현재의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당분간은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방침을 측근에게 밝혔다. 교도통신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아베 총리가 6일 밤 이같은 방침을 자신에게 전했다는 기자들에게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 부자는 ‘아마존 CEO’ 베저스

포브스 순위...삼성 이견희 회장 61위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억만장자’(10억 달러 이상)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68위에서 61위로 올랐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2018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베저스가 1120억 달러(약 119조9520억 원)의 재산으로 지난해 1위였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를 따돌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마존 주가가 59%나 급등하면서 베저스의 재산도 392억 달러나 늘었다. 포브스가 지난 1987년부터 관련 순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베저스의 재산이 미국인 230만 명의 부를 전부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크레딧스위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인 재산의 중앙값이 5만5876달러(약 6000만원)였던 만큼, 230만 명의 재산을 전부 합쳐야 1270억 달러(약 135조7600억원)로 베저스가 보유한 재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저스는 재산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07조원)를 넘어선 유일한 미국인이며, 그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 지난 24년간 18년간 1위를 차지



했던 게이츠는 900억 달러로 베저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3위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840억 달러) 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마화팅 회장은 각각 17위와 20위에 랭크.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4억 달러가 줄어든 31억 달러로 76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44위에서 200계단 이상 하락했다.

삼성 이견희 회장은 186억 달러로 61위에 랭크했다. 한국인으로는 이 회장 다음으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9억 달러, 126위), 이견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4억 달러, 207위), 서정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71억 달러, 222위)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대연정으로 열린 메르켈 4기 ‘여성시대’

내각 여성 대거 인선

독일 총선 5개월여 만에 정부가 출범하는 독일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 들었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연정으로 4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이 여성 각료를 대거 인선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깨질 전망이다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이 각각 자당에 배분된 각료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전체 내각의 성비 수치는 남성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기민당과 원내 단일세력을 이루는 보수 기독교민주당이 자당에 배분된 3명을 남성으로 채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권에서 여성 파워는 기민당 사무총장에 낙점된 안네그레트 크라프-카렌바우어, 사민당의 안드레아 날레스 신임 대표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강해 보인다.

향후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들도 모두 여성들이다.

가장 유력한 주자인 크라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국방장관, 울리아 클뢰크너 농업장관 지명자 등이 바짝 뒤쫓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기민당과 비교할 때 현저한 변화다.

클뢰크너 차기 농업장관은 나이 든 남성들이 장악했던 예전의 기민당이었던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밀러드는 난민·이주민 수십만 명을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메르켈 총리는 오는 14일 차기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재선출되면 곧바로 내각의 각료들을 인선하고 집권 4기 체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왼쪽부터 안네그레트 크라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사무총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제 국방장관, 울리아 클뢰크너 농업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하는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도전이 변수로 주목된다. 다양성 존중이라는 대의에 숨은 이주민의 남성우대 문화 때문에 독일

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양성평등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성의 동등한 처우나 고위직 여성에 대

한 높은 수용도 등 양성평등이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연합뉴스

북극의 옮겨올, 역대급으로 더웠다

기온 평년보다 10도 높아

북극의 옮겨올은 기록적으로 더웠다. 미국 자료가 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당달아 북극의 해빙(sea ice)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AP통신이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1982년 이래 북극을 연구해 온 마크 세레즈 NSIDC 센터장은 “정말 별난 일”이라며 “결코 이번 일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북극 부근 그린란드 끝자락에 있는 센터의 한 기상관측소의 경우 지난해에 영상의 기온이 60시간 이상이나 됐다. 이전만 하더라도 2월에 영상의 기온

이 나타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쳤다.

알래스카 배로의 북극권(Arctic Circle) 전역에 걸쳐 지난해 온도는 평년보다 10도 높았고, 겨울 전체로는 평년보다 7.8도 더웠다. 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학 국제북극연구센터(IARC) 자료에 따르면 북극의 다른 약 36개 기상관측소 중 15곳은 옮겨올 동안 평년보다 최소 5.6도 높았다.

기상학자들은 겨울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극의 기상관측소들은 평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4.9도 따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NSIDC는 이 같은 이상 기온으로 북극의 해빙도 기록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틔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 (모텔, 무인텔)

***화순 도곡 천암리**
객실 32개
(월 4,000만 수익예상)
감정:37억
최저:16억7천

***담양 삼다리**
토1,004평 건750평
감정:30억
최저:17억

***화순 도곡면**
토995평 건991평
감정:38억7천
최저:13억8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3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수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주차완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

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

③ 서구 마륙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1백

[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할수분]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

5) 광산구 수암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

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속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③ 광산구 수암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